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19



▶ 20회 예고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온 아쇼까는 아내 빠드마바띠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실의에 빠진다. 아쇼까의 아들 꾸날라를 키우던 왕비 다르마는 아쇼까의 두 번째 아내를 물색한다. 마침내 아쇼까는 두 번째 아내 아상디밋따를 만난다.

# 아쇼까, 탁실라 부왕이 되다

아쇼까 기마군사들은 강을 건널 때마다 수통에 강물을 담았다. 그러나 바로 마시지 않고 숙영지에 도착하여 반드시 끓인 뒤에 목을 축였다. 물을 끓이는 토기항아리 밑바닥은 늘 고기비늘처럼 허연 석회석이 달라붙어 있었다.

그러나 탁실라에 입성한 아쇼까 기마군사들은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다. 탁실라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퍼 올린 물은 아무리 마셔도 배탈이 나지 않고 달달하기까지 했다. 아쇼까 군사들은 탁실라의 우물물을 마음껏 마시고 맨땅에 누워 휴식을 취했다.

그 시간에 아쇼까는 수시마가 주관한 연회장에 있었다. 아쇼까의 전령이 미리 달려가 소식을 전했던바, 수시마가 동생 아쇼까를 위해 마련한 식사자리였다. 수시마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고 망갈라로이 형제도 수시마 좌우에 상석을 차지했다. 아쇼까는 수시마를 정면으로 보는 맞은편에 앉았다. 직사각형의 식탁에는 음식과 포도주, 과일이 푸짐했다. 악사들은 식탁 왼쪽에서 탁실라 전통악기를 들고 나와 연주를 했고 무희들은 춤을 추었다. 수시마가 말했다.

"내 동생 아쇼까여, 먼 길을 오느라 수고 많았네. 이곳에 무사히 도착했으니 오늘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쉬시게."

"부왕께서 환영해주시니 피로가 싹 풀리는 듯합니다."

"나를 보좌하는 대신을 소개하겠네. 나의 왼쪽에 앉은 사람은 탁실라 성안을 책임지고 있는 대신 망갈라로이이고,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탁실라 성 밖을 책임지고 있는 삐띠로이라네. 두 분의 대신이 동생이 탁실라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게 할 것이네."

수시마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망갈라로이가 말했다.

"왕자님이시여,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대신을 부르십시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환대해 주시니 고맙기는 하지만 나는 대왕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나는 대왕님의 명대로 머물다가 갈 것입니다."

수시마가 다시 아쇼까에게 말했다.

"따뜻한 음식이 식겠네. 어서 음식과 과일을 들면서 얘기를 나누세."

"이곳은 아직도 겨울이군요."

"왕자님, 이곳은 1년 중 반은 겨울이고 반은 여름입니다. 5월이 지나면 차츰 더워져 쥐들이 피를 토하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철에 오셨습니다."

접시에 놓인 난에서 구수한 호밀 향이 났다. 그리고 난과 함께 먹는 울긋불긋한 커리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커리 종류만도 서너 개 되었다. 양뼈를 졸인 사골 커리, 양고기가 들어간 매운 커리, 소고기를 잘게 썬 매운 커리 등이 있었다. 콩가루와 다진 고기를 뭉쳐 만든 고기 경단은 꿩 알만 했다. 뿐만 아니라 식감이 좋은 쌀밥에 당근과 건포도, 고기를 넣고 기름진 비계에다 달달 볶은 볶은밥도 큰 접시에 고깔모자처럼 수북이 쌓여 있었다.

포도주는 놋쇠주전자에서 달콤한 향을 피우고, 과일은 제철이 아닌데도 바나나, 사과, 망고, 포도 등이 여러 은접시에 가득 놓여 있었다. 수시마가 망갈라로이 대신에게 말했다.

"앞으로 소고기 커리는 금지시키시오. 농사짓는 소가 줄어들 테니까."

"살아 있는 소를 잡는 농부들은 없습니다. 농사짓다 늙어서 죽은 소의 고기만 먹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오."

수시마의 말을 자르는 망갈라로이의 태도는 다소 불손했다. 아쇼까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런데도 수시마는 별 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 아쇼까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형님은 이 자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게 틀림없어.'

식사가 끝나고 망갈라로이 형제와 악사, 무희 그리고 요리사들이 연회장을 나갔다. 수시마와 아쇼까만 남았다. 수시마가 자신 앞에 있는 포도주를 아쇼까에게 따라주며 말했다.

"우리 둘만 남으니 내가 빠딸리뿌뜨라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는군."

"형님,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나야 궁에서 편하게 살고 있네. 허나 망갈라로이 형제가 막아버리니 성민들을 만날 수가 없네. 성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허수아비 같이 사시는군요."

"그건 아니네. 나의 결재 없이는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니까."

"형님, 이 편지를 받으십시오. 대왕님께서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아쇼까가 품속에서 밀봉한 봉투를 꺼내 수시마에게 건넸다. 빈두사라왕이 수시마에게 전하라고 한 밀봉한 봉투였다. 수시마는 봉투를 뜯자마자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쇼까를 탁실라 부왕으로 임명하고, 수시마를 탁실라 고문으로 마우리아국 빈두사라의 이름으로 임명한다.〉

"형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형님을 우롱하는 권신이 있다면 척결하고 최대한 빨리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겠습니다."

"동생에게 부왕 자리를 내주었다고 놀란 것이 아니네. 대왕님께서 어찌 한 마디 언질 없이 바꿀 수 있는가, 그것에 놀랐네."

수시마는 아버지 빈두사라의 비정하고 냉혹한 처사에 놀라 두려움을 느꼈다. 아쇼까가 수시마를 위로했다.

"대왕님께서는 형님을 다시 부왕으로 임명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형님을 농락하는 세력이 있다면 빠르게 척결하고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허락을 받았으니까요."



"하긴 성민들의 불만이 목에 차 있다고 보고하는 신하가 있기는 했네."

"형님, 이 진수성찬을 빠딸리뿌뜨라에서 온 군사들에게 베푸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좋은 생각이네."

식탁에 차려진 음식과 과일이 궁녀와 하인들에 의해 수레에 실려 바깥으로 나갔다. 그때까지도 땅바닥에 주저앉자 휴식을 취하던 군사들이 음식과 과일, 포도주를 보자 환호성을 질렀다. 수레로 실어 나른 음식과 과일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동생은 왜 나와 같이 있지 않고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병약한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고 아내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야지. 나도 왕자비가 될 약혼녀가 잘 있는지 늘 궁금하다네. 여기로 약혼녀가 와서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나."

"형님께서 외로웠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대왕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그날 밤. 반달이 떴다. 하늘은 깊은 호수처럼 검푸르렀다. 희미한 달빛 속에서 이동하는 양들이 울음소리를 냈다. 아쇼까는 심복참모 두 사람을 불러 망갈라로이 형제를 어떻게 제거할지 회의했다. 참모들 중에 두 사람의 심복참모는 서로 의견이 갈렸다. 한 사람은 망갈라로이 형제 숙소를 잠입해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심복참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의 비리를 잡아내어 성민들의 호응을 얻은 뒤 재판으로 단죄하자고 말했다. 아쇼까는 후자를 선택했다.

"농간을 일삼은 그 자들을 재판에 회부하여 처단하시는 것이 탁실라 토착귀족들에게 경고도 할 겸 더 좋을 것 같소."

아쇼까는 성민들의 이름으로 망갈라로이 형제를 처단하는 것이 민심을 얻는 전략이라고 판단했다. 참모들은 아쇼까가 결론을 내리자 모두 선선히 따랐다. 특히 두 명의 심복참모는 망갈라로이 형제의 비리를 캐는 데 집중했다.

그런데 망갈라로이 형제들도 그대로 물러서지는 않았다. 아쇼까는 야밤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 복면을 한 자객이 아쇼까가 자는 침실로 들어와 격투를 벌였던 것이다. 아쇼까는 자객을 붙잡아 자객의 목에 칼을 겨누면서 추궁했다.

"누가 보냈느냐?"

"....."

입을 다물고만 있자, 아쇼까는 자객의 목을 베어 피를 보게 했다. 그제야 자객이 실토했다.

"망갈라로이 대신이 보내서 왔습니다."

아쇼까는 칼을 칼집에 넣었다.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아쇼까가 눈짓을 보내자 호위군사가 그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뒤 우물감옥으로 데리고 가서 던져버렸다.

몇 달 후, 아쇼까는 그동안 밝혀진 망갈라로이 형제의 비리를 수시마에게 보고했다.

"이 자들이 형님 몰래 뒤에서 농간을 부렸습니다. 목동들에게 자릿세를 받고 성민들에게 세금을 감면하면서 뒷돈을 챙겼습니다. 더구나 눈에 든 여자도 가로챘습니다."

"눈치 채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까지 부패한 줄은... 쯧쯧."

수시마는 혀를 차는 것으로 망갈라로이 형제의 체포를 허락했다.

"형님, 저 자들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기 일보직전이었습니다. 아니, 장사꾼들이 돈을 주고 산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반란이라고?"

"국경지방에서는 반란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돈이면 반란도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결국 아쇼까는 쥐도 새도 모르게 망갈라로이 형제를 체포했다. 망갈라로이 형제가 정사를 보러 궁으로 들어오는 순간 군사들이 그들을 결박해서 연행했다. 아쇼까가 지시했다.

"죽이지 말고 감옥에 처넣어라."

"부왕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어느 새 아쇼까는 탁실라 부왕으로 불렸다. 두 형제는 고문당하면서 무역하는 장사꾼들에게 무역세를 가혹하게 받아 착복한 사실을 자백했다. 삐띠로이는 이집트와 페르시아의 진귀한 보석을 받고 젊은 장정들에게 군역을 면제해준 적도 있었다. 여자납치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두 형제의 범죄사실이 많았다. 아쇼까는 공개재판을 통해 그들을 단죄했다.

"나, 아쇼까는 너희들의 죄를 밝히고 처단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느니라. 감옥 우두머리는 이 자들의 죄를 나열해보라."

감옥 우두머리가 망갈라로이 형제의 죄를 일일이 열거했다.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까지 외치면서 열거하자 시간이 꽤 지났다. 흥분해 있던 성민들이 야유를 퍼부었다. 감옥 우두머리에 의해 죄상이 다 알려진 뒤에야 아쇼까가 말했다.

"나는 너희들을 시신도 찾지 못하는 우물감옥에 쳐넣을 것이니라. 할 말이 있는가?"

"수시마 부왕께서 탁실라에 입성할 때 큰 공을 세운 바 있으니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너희들은 수시마 부왕님을 진심으로 그런 것이 아니니라. 수시마 부왕님을 이용하기 위해 도운 척했느니라. 그러니 죄질이 더 나쁘니라."

성민들이 우물감옥으로 끌려가는 두 형제에게 돌을 던졌다. 머리에 돌을 맞은 망갈라로이는 피를 흘렸고, 삐띠로이는 누군가 휘두르는 몽둥이에 맞아 부러진 팔이 덜렁덜렁했다. 두 형제를 우물감옥으로 연행하는 성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감옥 우두머리는 돌팔매질하는 성민들의 분노가 잦아들 때까지 수수방관했다. 그것도 두 형제에게 가하는 일종의 형벌이었던 것이다.

탁실라는 망갈라로이 형제를 처단하면서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국경지방에서 일어나려 했던 반란은 저절로 잦아들었고, 성민들과 목동들은 다시 예전처럼 생업에 전념했다. 탁실라 거리가 활기를 띠자 아쇼까는 빠딸리뿌드라로 돌아가려고 준비했다. 마침내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는 날, 아쇼까는 거느리고 온 기마군사들에게 철수를 지시했다. 아내 빠드마바띠와 아들 꾸날라가 보고 싶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계속〉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는 자비도량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명상 배워요!

분당 대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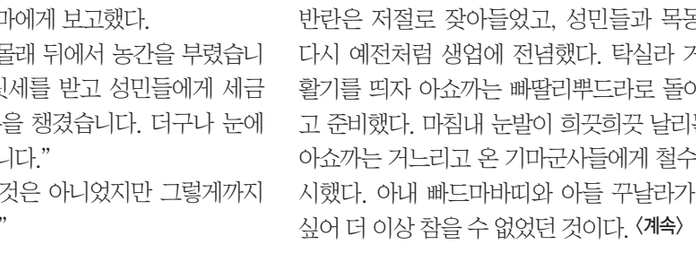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 천태종 불곡산 대광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 30 전화 031)715-3000 팩스 031)715-3409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

육해공군 삼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에
군불교 총본산이 될
호국 홍제사가 건립됩니다.



01 군불교 총본산!
• 장병, 마음의 쉼터이자 귀의처 홍제사.
• 군승법사의 체계적인 교육 공간이자 군장병의 불교문화 체험공간 입니다.

02 호국불교 근본도량!
• 민족과 함께하는 호국기원도량 홍제사.
•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몸 던진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도량 입니다.

03 미래불교 산실!
• 다양한 계층 아우르는 포교도량 홍제사.
• 지역민의 신행처이자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불자와 함께하는 수행도량입니다.

동참계좌: 국민은행 477401- 01-237619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동참문의: 군종특별교구 종무실 02.797-7266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교구장 선묵혜자
대한민국 육·해·공군 군승 일동

계룡대 호국 홍제사 조감도